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제 목 : ‘학생자치 실태조사(2021년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

주 문

전라북도교육감은 학생자치 기구인 학생회의 자치권과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교사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자치 연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개요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자치 실태조사’ (이 실태조사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2021년 방문조사이



므로 이하 “방문조사”라 한다) 결과¹⁾를 검토·심의하였고, 주문과 같이 교육감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학생자치 기구의 자치권 보장

1) 학생자치 활동의 권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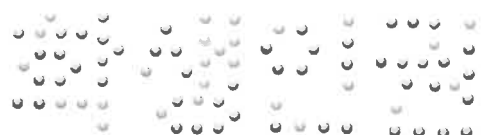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 ③항은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²⁾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조사 결과,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자치 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외에 학년을 이유로 제한하는 학교가 있고, 선거권 또한 학년을 이유로 제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자치 기구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모든 학생이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외에도 학년을 이유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학생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제한과 관련한 학생회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1) 2021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의 ‘학생자치조직’은 동아리와 학생회 등 학생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든 조직을 의미함.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4조 ①항은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고 규정함. 따라서, 이 결정문에서 말하는 학생자치 기구는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인 ‘학생회’를 의미함.



2) 학생자치 예산 편성운영권 보장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 ④항은 ‘학생자치조직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와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4조 ③항은 “학생회는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과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생자치 예산(학교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의무 편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자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자치 기구인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실정입니다.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학생자치 예산은 학생회가 직접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가 교육활동으로 편성할 예산을 학생자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직접 편성,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자치 예산을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가 학생자치 예산(학교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편성할 때, 교육운영비 총액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 합니다. 아울러,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예산 지급 방법(담당교사에게 개산급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학생회 대표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니다.

3. 학생자치 기구의 참여권 보장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와 제20조는 학생이 ‘학교 규정의 제·개정

에 참여할 권리’와 ‘학교 운영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5조도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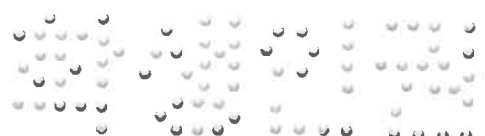
출할 수 있다.”고 학생의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조사 결과,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석률이 30%를 밑돌고 있어, 학생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대표가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률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학생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생 대표가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회의 시간 등)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학생자치 기구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먼저, 학생 대표가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 등을 학생 대표와 협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4. 학생과 교사 학생자치 연수

방문조사 결과, 여전히 교사와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자치에 대



한 인식이 다르고, 그 차이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학생자치 역량뿐 아니라 학교자치 역량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 자기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며, 기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학생자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 론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합니다.

2022. 1. 27.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